

7대손 아들을 낳게 해준 느티나무



지정번호 고성-12-20-6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고성

수령 538년

수고 35m

흉고둘레 6,2m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566

35° 01' 26.88" N

128° 23' 54.18" E

내곡리 자연마을의 남촌마을에 있는 보호수(고성-12-20-6) 느티나무는 인가와 밭과 개울 주변에서 높게 자라고 있다. 내곡리는 남촌마을과 북촌마을이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538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35m, 가슴높둘레는 620cm, 밑동둘레는 71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4m 가량이다. 원줄기는 사람 키 높이 정도에서 2갈래로 갈라졌으며, 다시 높이 2~5m에서 몇 개의 가지줄기가 갈라진 후 퍼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300여 년 전의 일이다. 이 마을 김씨 집안에 7대 독자가 있었는데,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박씨 여인이 나이 40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였다. 김씨 집안에서는 박씨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대가 끊긴다고 야단이었다. 박씨 여인은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박씨 여인은 여러 지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불공을 드리고 백일기도를 하는 등 모든 정성을 다하였다. 그렇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 어느 날 박씨 여인은

다른 날과 같이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 마을에 있는 고목의 느티나무 밑에서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기도의 마지막 백일이 되는 날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흰빛 수염에다 흰빛 장삼을 걸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정성이 대단하여 소원을 풀어줄 것이라 말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편안히 몸을 보살피도록 하라는 말도 하였다. 부인은 깜짝 놀라 꿈이 아닌 것을 깨닫고서 그날부터 굶은 일은 삼가고 몸조리를 잘하고 있는데, 몇 개월 후 아기를 갖게 되어 옥동자를 낳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으면 이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것이 유래되어 지금은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고 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깨끗이 목욕을 하고서 제각기 소원을 기원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동제를 지낸다는 바로 앞집의 중년 부인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일이 잘 안 풀릴 때에 이 느티나무에 기도드리며 위안을 찾는다고 하였다.

